‘휴대폰 딴짓’ 무인도 돌진,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영장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A(40)씨가 2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구속영장 신청… 항해사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 인지
조타수 “타각 지시 뒤 이미 무인도 눈앞… 과실 없다”
‘위험구간’ 지휘 안 한 선장 불구속… 관제실패도 수사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60대 선장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아 수로가 비좁은 ‘위험 구역’으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A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야 항로 앞 족도를 인지, 음성으로 조타수에게 (방향타)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사고 위험을 뒤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항법장치 목적지 역시 족도로 설정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조타수 B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다. 조타기 앞에 있었지만 지시 받았을 때에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여객선 내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변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승객 구조 직후 1차 육안 감식을 마친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해경은 전날 A·B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타실 내부 폐쇄회로(CC) TV가 없어 사고 직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해 ‘뉴스 검색’ 진술 진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선장 C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실을 비운 C씨는 ‘사고 당시 선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또 관제 실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였던 선박은 5척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힌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 육지로 이송됐다.

임신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모두 퇴원했다.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다. /뉴시스

10대 때 아동음란물 광고·판매 남성, 잠입수사에 덜미
성 착취음란물 온라인 판매 ‘구매자’ 행세 수사관에 잡혀
“형사미성년자 때 범행” 참작… 法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10대 때 판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 전시·광고한 남성이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안 강화형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에 소지한 음란물들을 판매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매매물을 전시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또 다른 온라인 채널에 방을 개설, 다른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음란물을 판매한 구매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공간에서의 불법 성착취물 유포·매매 등을 적발하려 음란물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 의해 들통 났다. A씨는 심지어 구매자 행세를 한 수사관에게 음란물 구입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복제돼 이에 관여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A씨가 온라인 계정을 개설해 음란물을 광고·판매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접 제작하지 않은 단순 다운로드 성착취물을 판매하려 했고 그 개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백운광장 도로 일부 통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부도로 공사로 인해 백운광장 도로 통제가 확대된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로 인해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백운교차로 280m 구간의 도로 통제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제로 인해 기존 편도 3~4차로가 편도 2~3차로로 줄어든다. 이 구간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대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복공판 지지대 제거 작업을 앞두고 폭 10m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통제를 결정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안내 표지판·플래카드 설치, 월산마을·미래아동병원 등 신호수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한다.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우회도로·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제 구간 차량 우회도로는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 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광주대에서 백운광장 방향, 호반힐하임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남광주(봉선·방림)에서 백운광장 방향, 미래아동병원 교차로에서 기독병원(수피아여고) 방향,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방향, 대화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봉선중앙로(봉선초교) 방향 등이다. /이승원 기자

학교급식·돌봄 파업 호남권 참여율 19%… 학교 10곳 중 4곳 ‘빵급식’

교육부, 2025 교육공무직 총파업 호남권 현황
교육공무직 2만3738명 중 4487명 파업 참여
학교 급식 미운영 40.1%… 빵·도시락 등 대체식
돌봄교실 미운영 92개교… 12월 4·5일 추가파업

호남권 교육청 소속 급식·돌봄 등 교육공무직원의 18.9%가 21일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10곳 중 4곳이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날 교육부의 ‘2025 교육공무직 총파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호남권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인원은 4487명으로 전체 2만3738명 중 18.9%(4487명)였다. 이는 전날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의 파업 참여율 12.9% 대비 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학교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학교는 2050개교 중 1228개교(59.9%)로, 전일(67.0%) 대비 더 많은 학교가 파업으로 인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급식 미운영 학교 822개교(40.1%) 가운데 대체식 제공한 학교는 ▲빵·우유 749개교 ▲도시락 지참 1개교 ▲도시락 구매 30개교 등이었다.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미실시한 경우는 34개교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092개교 중 파업참여자가 있는 학교 수는 238개교였으며, 이중 실제로 돌봄교실을 미운영한 학교는 92개교(8.4%)였다. 돌봄교실은 전체 1970교실 가운데 367교실(18.6%)이 운영되지 않았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중 돌봄을 미운영한 곳은 1개원(8.4%)이었으며 특수학교 중 재량휴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연대회의는 향후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12월 5일 영남권 등으로 릴레이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대회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 8월 28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3번, 실무교섭 4번 등 총 7차례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방학 중 업무가 없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무임금 해소 등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오권철 기자

“휴대전화 바꿔줘” 홧김에 불 낸 10대 구속영장

늦은 밤 광주 도심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집안을 모두 태우고 입주민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인명피해를 낸 10대 여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20층 규모 한 아파트 3층 가구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작은방 침대 침구류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6분 만에 꺼졌으나 대피하거나 구조된 입주민 75명 중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불이 난 가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211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A양은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A양의 불이 난 집에서는 또래 3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송현근 기자